



DAERYUN NEWSLETTER VOL.20

[대륜 뉴스레터] 캄보디아 납차·구금 피해자, 가해자로서 책임은?

캄보디아 납차·갑금 피해자들, 가해자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까

최근 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 취업 사기에 속아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당하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들의 송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신매매와 유사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국내에 약93억 원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송환 인원 중 대다수를 검찰 송치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명 아래 자발적으로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이 입증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가해자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은 ‘속아서 갔고 강요에 의해 일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될 수 있을까요?

NOTABLE CASES

대륜이 합니다

직무정지 기간 중 분리예배 진행한 목사, 업무방해죄 2심서 무죄 받아

해외 소프트웨어사로부터 저작권법위반 고소, '개인 사용' 입증해 불기소로 종결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 속 용역비 7억원 청구, 전액 기각한 사례

'국가기관에 폭발물 설치'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했으나 무죄 판결

3억 5천만원 증증재산 횡령한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LEGAL INFORMATION

법-키퍼디아

현금수거책 발행 가담 경로 확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수위와 판례 정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자 대응법

명예훼손한 유튜브 고소, 미국 법원과 '디스커버리 절차' 공조로 계정주 신원 파악 가능해

INSIGHTS

언론 속 대륜

머니투데이



보험사기 규모 3년 연속 '1조원 대'...연루 시 변호사조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상해 및 질병보험 관련 사기가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덕 변호사가 보험사기 연루 시 대응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머니S



인천관광공사 상대 '임대차계약관계 존재'인 소송, 원고 측 승소

카페 운영업체가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 계약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카페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내는 단위와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단위가 다르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건을 대리한 김성찬 변호사의 코멘트를 들어봅니다.

매일일보



사기냐 단순 채무불이행이나...판단 기준은 '처음'에 있다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였다면?"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 사건과 채무 불이행 사건의 판단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민형사 사건의 갈릴길 이 될 지점에 대해 오시는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MBN



“고객 만족을 품질로 증명”...대륜, 승무 품질보증제도 시행

대륜이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승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며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고객 신뢰 확보와 책임 문화 확산을 위한 전례 없는 시도로, 환불 담당팀을 별도 운영해 고객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호나불이 필요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국일 경영대표의 인터뷰를 들어봅니다.

CONTACT

조상수

대표총괄변호사 T.070-5117-3709

윤형윤

대표총괄변호사 T.070-7510-1118

임석필

대표총괄변호사 T.070-7510-2014

조영삼

대표총괄변호사 T.070-7510-2014

윤경원

최고총괄변호사 T.070-5117-3709

연명훈

최고총괄변호사 T.070-7510-2012

법무법인(유한) 대륜

DAERYUN LAW FIRM

대표번호 1800-7905



법률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